

일주문



항일애국지사 추모법회 봉행
원주 구룡사 주지 원형 스님은 4월 5일 구룡사에서 2018년 동계울림악 유치기원 원주권 항일독립애국지사 추모법회와 해수륙영가방생전도 생명대법회를 봉행했다.



난치병어린이들이기 3000배 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오 스님은 4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8회 난치병어린이들이기 3000배 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02)723-5101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송목 스님은 4월 2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0회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입문불자 문화강좌 열어
광주 천통사 주지 무등 스님은 4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불교방송에서 신도교리·기도·불교수행 등 입문불자를 위한 내용으로 문화강좌를 연다. (06)2234-1338



지불국사 <수심결> 강의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4월 7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 광주 원각사에서 보조지불국사의 <수심결>을 강의한다. (06)2223-3168

운암사업회 제3대 회장 취임



이해찬 前 총리 추대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 제3대 회장으로 이해찬 前 국무총리가 추대됐다. 취임식은 4월 1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운암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가 냉전과 분열이라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후손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책임감 있게 단체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운암 선생은 독립운동 시기, 한말 앞서 전략적으로 한·중 교류를 시도했고 진보적 정치운동 이로서 등 저술도 많이 남겼으나 그 기록이 많지 않아 아쉽다"면서 "다음세대들이 이어나갈 청년들이 역사적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발굴해 운암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활발히 조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암사업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해찬 회장은 1952년생으로 제13-17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11년 3월까지다.

한편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4월의 독립운동가로 운암 김성숙(번호 태화, 1898-1969) 선생을 지정했다. 봉선사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운암 선생은 평안북도 철산군 출생으로 중국에서 좌파계열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며 조선민족전선연맹 기관지인 <민족전선> 편집을 맡기도 했다.

김강진 기자

소재 무궁무진...더 좋은 작품 '의욕'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 유성씨



"자연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연(蓮)을 소재로 깨끗하고 단아한 작품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연화문 백자호룡, 죽림 백자수지, 백련유백자기'로 대상을 수상한 유성(31)씨. 도예가들 사이에 일반적인 '연'을 소재로 다뤘지만 유씨는 "백자가 갖는 깨끗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승천 교수(홍익대)는 유씨의 작품을 "미려한 형태와 심오한 유백색이 은근한 기품을 주며, 연화문양이 기능과 잘 조화됐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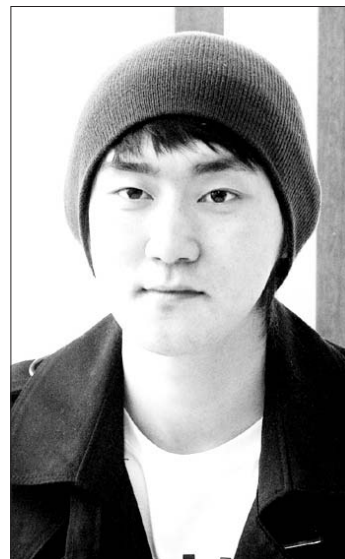
유씨는 경기도 이천의 도예촌에 마련된 '유성요'에서 백자 다구를 주로 만드는 도예가로, 16살 때인 1993년 도예에 입문했다. 이후 1995년 조형실기대전에서 대상 수상한데 이어 2006년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에서 특선과 입선, 2007년 같은 공모전에서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게 됐다는 유씨는 "아직 불교교리에 대해 잘 모르고 사찰을 자주 찾은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주는 편안한 느낌이 좋다"고 말한다. 법명은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담 스님에게 받은 '해담(慧潭)'.

기예원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 달리 100% 수작업을 고집하는 유씨는 "도예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작업해 불교문화대전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씨의 또 다른 작품은 차전문집지 <티엔피플>이 주관하는 '4월의 다구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4월 16-22일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열린다.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공모전대상우루팀 노윤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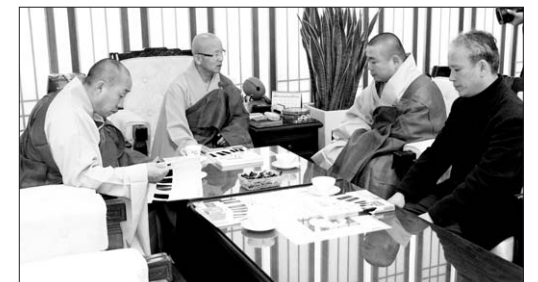
공주 갑사의 공우탑(功牛塔) 설화를 플레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우루팀'의 노윤식(25, 공주대 만화학부 4)씨. 플레시 애니메이션 '어느 도둑의 이야기'는 노씨와 공주대 만화학부 선후배 7명으로 이뤄진 우루팀이 제작한 첫 작품이다.

노윤식씨는 "집필된 애니메이션계의 발전을 위해 팀원들이 똘치게 됐다"며 "공모전 소식을 듣고 직접 갑사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3개월에 걸쳐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공우탑에 얽힌 설화에 등장하는 '소'를 소재로 스토리를 구성해 '물질적인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우탑 전설은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갑사를 증강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울력을 하던 어느 날 인호 스님이 꿈에 "질을 있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소의 말을 듣게 되는데서 시작된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 앞에 진짜 소가 나타나 목재와 돌을 나르며 힘을 보태다 기력이 다해 쓰러지게 되고, 이러한 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이 바로 공우탑이다.

"팀원들 모두 학생이라 방학 기간동안 답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하루 15시간씩 컴퓨터로 작업해 완성하게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작품을 하며 불교에서 무궁무진한 소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 하되, 이미지 위주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노윤식씨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불교적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원에 악보집 기부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집무실에서 포교원에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전3권 각각 500권을 전달했다. 포교원장 혜홍 스님은 "불교 음악을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좋은벗 풍경소리의 뜻을 헌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기자

백제불교회관 개관 7주년 기념 법회 봉행



백제불교회관(관장 정곡)이 3월 28일 회관 법당에서 개관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네발 톨바니원 대성사 도선 스님, 백제불교회관 관장 정곡 스님, 비구니 청림회 회장 효경 스님, 선재불교대학 석진 스님, 흥효사 주지 일권 스님, 생활불교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우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기자

명성·혜철 스님, 37사단장 감사패 받아



육군 37사단(사단장 김홍배 소장)은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 및 부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명성 스님과 육전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홍배 사단장은 "스님들께서 장병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군의 사기가 높아진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손효선기자

죽림정사, 용성 스님 입멸 제68주기 대제 봉행



용성 스님 입멸 68주기를 추모하는 대제가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문)에서 봉행됐다. 3월 31일 열린 용성 스님 입멸 제68주기 봉안대제에는 한국불교 총정령의회 총정 석가산 스님, 법륜종 중정 보산 법광스님과 김상두 前 장수군수,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정영신·김진영 이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조종섭기자

"명상지도자 길 인도 책임교육 할 생각"

스님대상 '자비명상' 강좌 여는 마가 스님



지난해 스님과 재가자들을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강화를 열어 선봉을 일으켰던 마가 스님이 두 번째 강좌를 연다. 4월 14일 '이판승을 위한 자비명상' 5월 26일 '재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6월과 8월 '사판승을 위한 자비명상' 등 3차례에 걸친 프로그램이다. 각 과정은 4박 5일 집중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스님들 과정을 좀 더 세분화 해 이판과 사판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위한 예비과정인 셈입니다."

종교교육과 장기적인 심화 과정을 거친 후 명상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할 생각"이라는 스님은 "급변하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스님들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템플스테이와 명상 관련 강의를 해 온 스님은 올해 동국대 선화관에서도 강의할 예정이다. 자비명상 참가문의 (041)622-1190 임연태 기자

한글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안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자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제 1권: 예경:각청편 제 2권: 천도:시식편 제 3권: 수계:방생편 제 4권: 장의편 제 5권: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목 협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교육내용: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특징: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일시: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등미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VIP 여행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문수도량: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구회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구회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미안나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HAN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055)741-9999 / Fax 055)742-4444